민청학련사건에서 사형수가 되기까지

이 철

*이철님은 민청학련사건 당시 서울대학생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로 감형되어 복역하던중 1975년 2월 17일에 석방되었다. 1985년 2.12 선거에서 신민당 돌풍을 일으키는 핵으로 국회에 들어가 12, 13, 14대 국회의원직을 지냈다.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떠올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또 다른 용기를 필요로 했다. 30여 년이 다된 오늘에 와서 행여 뜻을 함께 했던 분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곡해하지는 않을까 고민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처음 받았을 때, 달포 가까운 시간을 두문불출하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마음과 달리, 머리 속 기억의 편린들을 정돈해 내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당시에 내가 민청학련의 '행동총책'을 맡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동지들의 활약을 일일이 적시하기에는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뿐더러,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부담감도 크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민청학련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증언이 동일 연장선상에서 공유되고 설명돼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뒤에서 보다 구체적인 역할들이 거론되겠지만, 당시 나를 비롯해 민청학련 '중앙위원'이라 지칭되던 나병식, 정문화, 황인성, 김병곤씨와 당시 고학번으로 현장 2선에서 우리와 함께 뛰었던 유인태, 서중석, 정윤광, 안양로씨 등 여러 동지들과 선후배들의 증언이 함께 검토되고 종합돼야 한다고 믿는다. 또 사건의 현재적 의의를 찾고자 한 지점에 봉착해서는 정작 좁다란 내 식견을 탓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다.

때문에 이 글을 쓰면서, 극히 개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주관적인 판단은 배제하고 사실적으로 기술하려고 애썼다. 주섬주섬, 조각조각 여기에 되살려낸 내 머릿속 기록의 대부분은 당시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별다른 이견이 없음직한 일들임을 미리 밝혀둔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미래도 없다고 믿는다. 74년 민청학련의 순수한 지향과 투쟁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풀어 가는 가늠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복학과 또 다른 고난의 시작

1969년 3선개헌 반대투쟁시 나는 서울대 문리대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 고교 시절의 문학적 열정과 방황 덕(?)에 삼수를 해서 어렵게 대학에 들어온 터였다. 당시 67학번이던 서중석(현 성균관대 교수)과 1년을 재수해 68학번으로 입학한 유인태(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선배그룹과 내가 같이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동갑내기'라는 연배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입학 후 얼마 되지 않은 69년 여름 무렵, 나는 '3선개헌 반대시위'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제적되고, 곧바로 군에 강제징집당하는 신세가 됐다. 강제징집 세대의 선두주자인 셈이다.

제적 소식은 그 해 8월 경에 여행 중에 접하게 되었다. 휴교이자 방학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전남 구례로 가는 완행버스 안에서였다. 휴게소에서 신문을 사온 친구가 3선개헌 반대시위 관련 학생들의 제적자 명단에서 내 이름 두 자를 찾아낸 것이다. 외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계셨던 부모님의 얼굴이 차창에 떠올랐다. 대학생활 8개월만의 제적이라…… 무척 착잡한 심정이었다.

다행히 강제징집 이후에 대학에 복교 조치가 됐다. 3년 간의 서러운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캠퍼스에 복학한 것은 72년 8월이었다. 복학한 72년 8월은 박정권의 위기감이 한창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 해 10월 17일 오후 5시, 나는 목 부분을 자른 군화에다 해진 옷을 걸치고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의 다리에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고 있

었다. 바로 그 때, 조용한 캠퍼스 사위를 뚫고 둔탁한 굉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멀리서부터 차츰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심장이 벌렁거렸다. 우르릉 우르릉! 육중한 캐터필러의 굉음이 분명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글세, 종로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종로 5가 쪽을 향해 뛰었다. 그리고 곧 덮칠 듯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두 대의 탱크와 마주치게 됐다. 뭔가 일이 터진 것을 직감했다. 이 날 저녁 7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와 정당은 해산되었다. 그리고 해산된 국회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로 넘어갔고, 박정권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10월유신'이 선포된 것이다.

유신 출범 1주년이 채 안된 다음해 10월 2일 오전 10시, 삽상한 가을 바람이 하늘을 가르는 교정의 분위기는 날씨와 관계없이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술렁거리는 학생 사이로 몇몇 학우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4·19탑 앞에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 학생들이 삽시간에 수백 명으로 불어나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당국의 엄중한 감시를 뚫고, 문리대 71학번 나병식, 정문화, 황인성, 도종수 등이 앞장선 최초의 반유신 집단시위(훗날 이 날을 '10·2투쟁'이라 불렀다)가 벌어진 순간이었다.

"오늘 우리는 전 국민대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 참혹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스스로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 무언의 저항을 넘어서 분연히 일어섰다."

선언문을 낭독한 5백여 서울문리대 학생들은 '정보정치를 즉각 중지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체제를 확립하라,' '김대중씨 납치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은 '유신체제 비판 불용'이라는 금기의 벽을 허물며 만만

치 않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틀 후인 10월 4일에는 서울법대, 5일에는 서울상대가 데모와 농성에 돌입해 김병곤(71학번, 경제학과) 학우 등이 연행됐고, 6일과 10일 이화여대와 숙명여대는 축제행사 취소를 결의하였다.

10월 중순 이후 학생들은 맹휴(盟休)로 유신정권과 맞섰고, 11월부터 시위와 맹휴 사태는 한층 더 확대,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들의 투쟁은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등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11월부터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각계의 성명서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12월에는 범국민적인 '개헌청원 서명운동'으로까지 발전하였다. 12월 24일에 장준하, 백기완, 계훈제 등 30여 명은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7일에는 이희승, 이호철, 백낙청 등 문인 61명이 서명에 앞서 개헌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당황한 박정권은 12월 29일 담화를 발표, 개헌서명운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하는 한편, 74년 1월 8일을 기해 전국에 긴급조치 1호를 선포했다. 탄압하는 당국에 맞서며 학원에서, 언론에서, 재야에서 반유신운동이 전개된 가운데 73년이 가고 파란의 74년을 맞이했다.

'10 · 2투쟁'은 학생운동권 내부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71학번 나병식, 황인성, 도종수, 정문화 등 핵심 주동자 대부분이 구속되고 수배되면서 한때 전열이 일거에 붕괴되기도 했다. 나 또한 도종수의 학생회장 선거와 데모에 후배를 내세우는 등 직계 선배로서 10 · 2투쟁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당연히 수배 명단에 떴고, 피신생활을 해야 했다. 문리대 건너편 의대 구내의 '정영사'라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나는 마땅한 피신처를 찾아 옮겨 다니며 학교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

그 해 11월 말, 구속 학생 대부분이 석방되고 수배가 해제됨에 따라 학생운동권 내부에서 10 · 2데모에 관한 치열하고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당시의 평가 결과는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투쟁을 쉬지 말고 진행시켜야 한다. 유신체제야말로 합법적이며 평화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른 순리적 정권교체의 길을 원천 봉쇄하는 체제이고, 결국 민중의 고통과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을 저해하는 악으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둘째, 우리가 전국 학생의 힘을 모아 싸운다면 전국민적 항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제2의 4 · 19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투쟁에 대한 낙관과 신심을 가지게 됐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미온적이었던 의대, 공대 등이 투쟁에 적극 나서는 성과가 있었고, 전례없는 여학생들의 시위도 높이 평가됐다. 그리고 다음해 신학기를 맞이해 '전국적인 거사'를 준비하자는 의견이 학우들 사이에 이심전심으로 공유되기 시작했다.

각 그룹 간의 활발한 논의와 모색

반유신투쟁 계획은 10 · 2투쟁에 이은 조기방학 기간에 더욱더 활성화되고 구체화되어 나갔다. 당시 민청학련 사건과 직 · 간접적으로 연루된 각 그룹을 분류해 보면, 우선 학생운동권은 69년 3선개헌 반대투쟁으로 강제징집된 후 복학한 선배그룹(서중석, 유인태, 안양로, 정윤광, 이철 등)과 70, 71학번을 주축으로 한 후배그룹이 있었고, 이들은 다시 학생운동권과 1970년 중반부터 교회운동에 투신한 기독학생회 그룹(서경석, 나병식, 황인성 등)으로 대별될 수 있었다.

이외에 종교계의 지학순 주교 및 원주팀(박재일 등 농민운동그룹과 종교계, 그리고 김지하 등), 박형규 목사, 그리고 졸업생 선배그룹(유근일, 김지하, 이현배, 장기표, 조영래 등), 정계(윤보선 전 대통령 등) 및 재야원로(함석헌, 장준하, 백기완 등), 문학계와 학계(김동길, 김찬국, 백낙청 등)로 크게 분류될 수 있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사람과 집단들이 존재한다. 소위 인혁당 관련

인사들, 그리고 재일 조총련 및 공산당의 지령을 받았다고 당국이 조작해낸 일본인 기자들 등이다.

나는 군 제대 후 1학년 2학기에 복학해 73년에 2학년에 재학중이었다. 따라서 후배그룹과 현장 일선에서 직접 만나기가 용이했다. 그리고 당시 3년 선배인 정윤광에서부터 4학년이었던 서중석, 1년 선배인 유인태까지가 모두 내 동갑내기들이었다는 점, 또 내가 어느 한 서클에 가담하지 않고 각 그룹들과 넓은 교우관계를 해온 터라 선배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중심 학번 그룹과 쉽게 결합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내 여건이 후에 민청학련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맡게 된 동기의 하나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10 · 2투쟁을 계기로 조성된 '전국적 규모의 반유신투쟁을 조직화'해내기 위한 학생운동진영 내부의 논의는 12월 경 거의 일단락을 맺게 된다. 그리고 이 논의는 후일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련 결성일'이라 억지 지칭한 1월 10일의 모임으로 집약되게 된다.

사실 이 기간 동안 반유신 투쟁의 의지를 전국적으로 확산 · 결집해 내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서중석, 유인태, 정윤광, 제정구 등이다. 이들의 노력을 빼놓고 이 시기의 투쟁을 말할 수 없다. 주로 나와 유인태, 서중석 등이 둘씩 셋씩 짝을 지어 각 지역과 각 그룹(상기의 학생, 종교, 재야 등)의 반유신 투쟁 의지를 확인, 고취시키고 결집시켜 나가는 작업을 전개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각각의 인간관계를 동원해 서로의 투쟁의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전국적 투쟁의 통일 연대조직 결성의 필요성을 제창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전국적 단위의 반유신 투쟁의 필요성은 이미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었고, 각자의

위치와 처지 속에서 이를 위해 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청학련사건은 '누가 주도했다거나 일방적으로 리드했다'라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당시 우리의 활동을 살펴본다면, 서울대 문리대를 중심으로 법대, 상대 쪽과의 연결은 주로 나와 김효순(70학번, 정치학과)이 맡았고, 유인태, 정윤광, 서중석 등의 개별적 접촉도 동시에 진행됐다. 전국 각 대학의 연결선 확보작업은 이들의 조력을 받으며 유인태가 주로 진행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갔다.

이를 통해 문리대를 중심으로 나병식, 황인성, 정문화 그룹이 뭉쳐졌고, 법대의 조영래, 이신범으로 출발해 사회법학회 출신 안평수 등이 연결됐으며, 상대의 김병곤, 그리고 새롭게 학생운동의 흐름이 형성되던 공대의 서경석(66학번), 신철영(70학번), 의대의 심재식(67학번), 이대의 김은혜(69학번), 오성숙(71학번), 연대의 김영준, 김학민, 최민화, 송무호, 성균관대의 김수길, 고대의 이상수, 그리고 동국대, 서강대, 중앙대 등이 연결됐다.

또 지방으로는 나와 유인태 등이 주로 담당했던 광주의 전남대가 연결되고 있었다. 이 광주선의 연결을 위해 조학송(서울문리대 66학번, 광주 출신)과 전남대 출신인 박석무의 소개를 받아 이강, 김정길, 윤한봉 등과 접촉을 했고, 또 서울법대의 최국신을 통해 전북대선이 전남대 윤한봉에게 연결됐다. 그밖에 목원대, 충남대는 안양로와 함께 만났다. 경북대의 경우 이미 여정남이 3선개헌 투쟁 이래 우리와 계속 끈을 이어왔고, 이강철(66학번), 임구호(67학번), 정화영(67학번), 임규영 등과는 새로이 접촉했다.

훗날 여정남은 도예종 등 7인과 같이 '인혁당사건'으로 사형을 당하게 된다.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여정남은 연배상으론 한참 위였지만, 3선개헌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우리와는 오

랫동안 서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가 서울에 올라오면 우리는 '용금옥'에서 소주잔을 놓고 시국담을 교환하곤 했다.

그리고 한참 후의 일이지만, 단국대 1년생이던 구충서를 통해 내가 경기고 3학년 학생들과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치중한 나머지 고등학생들과의 조우는 제대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고 끝내 연결선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고려대였다. 고려대는 3선개헌투쟁 이후 '위수령 사건'과 '민우지 사건,' '검은 10월단 사건' 등등으로 학생운동 리더들이 대거 구속되는 사태에 봉착해 그 핵심과 공조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특히 67학번으로 대학생활을 6년이나 하고 있었던 서중석(후에 공소장에는 민청학련 사회인책으로 기소)은 폭넓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람을 소개시켜 주거나 재야원로와의 접촉 등 상층사업을 주도해 갔다. 서중석은 당시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있었던 유근일, 상록학원 강사로 있었던 이현배(63학번, 사학과), 조영래(당시 변호사 사무원), 서경석(당시 한국기독학생총연맹 간사) 그리고 김지하 등 원주그룹, 장준하 · 백기완 그룹, 백낙청 등의 문인그룹 등과 폭넓게 접촉하면서 신학기 학생운동의 지원과 연대를 위한 논의들을 진행시켰다.

물론 나와 유인태 등도 선배 및 재야인사들과의 지지, 연대활동을 벌였지만, 이 역할은 서중석이 주로 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원주의 지학순 주교를 위시한 박재일 등에 의해 반유신투쟁의 전민중적 궐기를 위한 사전 준비활동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빼놓을 수 없는 기독교 인사 및 기독학생운동그룹과의 연결은 서중석, 나병식 등이 안재웅, 이직형, 정상복, 나상기, 이광일, 서경석 등과 만나면서 이루어졌다. 김찬국, 김동길 교수 등의 그룹과는 연세대의 김영준, 김학민이 만났다.

이 분들을 접촉했던 목적은 물론 우리 운동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하기 위함이었다. 취직한 선배 그룹과의 만남은 지지와 격려의 확보, 1만원, 2만원씩의 성금 갹출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뒤에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이야기지만 지학순 주교로부터 일정액의 자금이 김지하 → 조영래 → 서중석 → 나병식 선을 통해서 사용됐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제 1선 지도부라던 나와 정문화, 김병곤, 황인성 등은 이 자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연대와 지지 활동은 대략 두 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소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 투쟁에 대한 이들의 지원과 후견인의 역할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사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입건, 지학순 주교(1974년 8월), 김찬국, 김동길 교수의 구속은 박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한 무리수였다. 이런 분들의 지지배경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의 사형도 실제로 집행됐을지 모른다.

둘째는 박정권도 지적했듯이, 학생운동뿐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직수준의 저급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당시에 우리는 학생운동의 선도성과 책임있는 사회 지도급 인사 및 민중들의 조직화를 모색했던 것이 분명하다.

전국적 투쟁조직망의 완성과 역할분담

아마도 1974년 1월 초로 기억된다. 73년 11월 말 이후 수많은 사람과 그룹간에 꾸준히 지속돼온 투쟁 준비가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나가면서 그간의 성과들을 정리, 점검하기 위해 유인태 집에서 회합을 가졌다. 유인태 집은 반지하가 있는 2층집이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지방의 대표까지 포함해 대략 열 명에 가까운 숫자가 회합을 가졌다.

공안당국은 이 날을 '민청학련 결성일'로 공소장을 작성하기도 했으나, 이 날의 모임은 실상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 다만, 논의의 확산과정에서 공감한 각 지역의 대표급 인물들이 모여 신학기 투쟁계획과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적 투쟁조직망을 '3·3·3원칙'으로 구성하자는 선에서 이야기가 모아졌다. 3·3·3원칙의 내용은 이렇다.

우선 출발은 서울문리대, 법대, 상대 등 3개 단과대학을 축으로 움직이며, 그 외의 서울대 각 단과대학은 위 3개의 축을 기점으로 연결한다. 둘째로 서울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축으로 구성해, 이 3개의 대학을 기점으로 이화여대와 강원대를 직접 연결하고, 그밖의 대학들을 연결시킨다.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는 서울과 대구, 광주를 3개축으로 하여 전국투쟁조직을 완결짓는다. 즉 3·3·3원칙은 3개의 단과대학, 3개의 종합대학, 3개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현재의 조직운동과 같은 수준에서 이해되기에는 다소 저급한 것이 사실이다. 권위와 명령적 질서로서의 중앙위원회가 존재했다거나, 대외협력부와 같이 조직적 체계로서 상층 및 부문간 연대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 반유신투쟁을 진행하기 위한 전국조직의 준비와 역할분담은 3월 6일로 기억되는 유인태 집의 모임에서였다. 공소장에 나오는 역할분담이 이 자리에서 결정됐고, 명칭 및 투쟁계획에 대한 대략의 일정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투쟁의 기획, 연락은 서울에서 맡는다. 이를 총책임질 팀은 이철, 정문화, 김병곤, 황인성으로 하며 이철이 행동총책을 맡는다.

둘째,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유인물은 서울에서 책임지고 일괄 작성, 공급한다. 다만 유인물의 복사는 각 지방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한다.

2 · 15 석방조치로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이철

넷째, 각 대학별 예비시위를 조직하여 4월 초 일제히 거사한다.

이외에도 화염병을 사용하는 문제가 거론됐으나, 대부분이 반대의 사를 표명한 것으로 기억된다. 또 74년 당시 이미 졸업을 한 유인태, 서중석 등의 역할이 김병곤, 황인성 등에게 거의 이양됐다. 이 결정으로 그 동안 전국적 투쟁조직의 건설에 음으로 양으로 실질적 역할을 해온 유인태, 서중석, 정윤광, 안양로 등이 일단 현장 책임선에서 한 발 물러났으나, 나를 포함한 투쟁체제가 체포와 수배로 기능이 정지되면 재차 전국조직을 재건, 가동시키기로 했다(그럼에도 유인태의 강원대 등 지방연락업무 및 지원사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결정사항 가운데 둘째 항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의 조직적 수준을 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 상설적 조직이라기보다는 반유신투쟁을 위한 임시 투쟁기구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신학기 전국투쟁의 현장 총책임을, 정문화는 서울대 내 각 단과대학의 연결을, 김병곤은 서울시내 각 대학의 연결을, 황인성은 지방대학과 이화여대의 직접 연결을 맡게 됐다. 지방 및 각

대학, 강원대책 정성헌과는 유인태가 계속 연결을 담당했고, 황인성은 부산대책인 김재규, 영남대의 김광택, 경북대의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전남대의 윤한봉, 경희대의 이상훈, 이화여대의 오성숙 등을 연결했다. 나병식은 현장 1선에서 빠져 있었지만 한국신학대의 김경남, 기독학생총연맹의 서창석, 그리고 위로는 서경석 등과 연결을 맺었다.

서울시내 각 대학은 김병곤이 연결을 담당했는데 성균관대의 김수길, 동국대의 여익구, 연세대의 김영준 · 송무호, 고려대의 강박인, 서강대의 황민수 · 박석률과 조우했다. 서울대 각 단과대학을 맡은 정문화는 의대의 황승주, 사대의 서종수, 공대의 신수철, 상대의 정금채, 법대의 김동연을, 그리고 고교 담당으로 단국대 1선의 구충서, 서울문리대의 송운학 등과도 연결고리를 잇게 됐다.

3월 중순부터는 이근성이 유인물 출판, 인쇄 담당으로 합류하게 됐다. 당시 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었다.

3월 초에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분담됐다고는 하지만, 각 역할 책임자들이 전혀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월 중순부터 나병식, 정문화, 김병곤, 황인성 등 70년대 학번 중심의 활동이 선배그룹과 함께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대전의 사랑방다방, 광주 · 부산 · 구로역 앞의 중국집, 서울문리대 앞에 있던 살롱, 아담다방, 사직공원 앞의 대머리주점 등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논의되고 점검됐다. 당시 나와 김병곤, 정문화, 황인성 등은 유인태, 서중석, 정윤광 등의 조력을 받으며 1월 중순 경부터 각 지역 대표들과 회합을 가졌고, 신학기 투쟁을 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지원한 대학이 경북대였다.(이후 3월 10일 경 한신대에서 음성적인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강철 등의 경북대가 3월 21일, 4월 투쟁을 위한 예비시위를 조직하기로 자원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

시위를 받아 서울에서는 서강대, 연세대 순으로 데모를 조직화해 내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투쟁계획의 확정은 3월 하순 경 경기도 양주군의 모임에서 이루어졌다. 이 모임에서는 이러한 투쟁일정 이외에도 유인물의 공동사용, 유인물의 신뢰도 및 대중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체의 명칭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물론 명칭은 박정권에게 크게 말려들 우려가 있고, 당시의 조직적 수준에 따라 만들지 않기로 이미 논의된 바 있었으나 막상 유인물을 작성하다보니 조직명칭 문제가 걸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 거론됐던 명칭들은 '유신에 저항하는 모든 학도들', '반파쇼민주학생연맹'(김병곤), '반독재전국민주학생연맹'(정문화) 등이었다. 그러나 명칭만큼은 '안티체제의 성격보다는 지향점과 정체성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 정하게 됐다.

특히 '청년'을 붙인 것은 우리의 투쟁이 대학생들에 한정되지 않고 전 계층적인 투쟁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3월 21일 첫 번째 시도라 할 수 있는 경북대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예상보다 적은 2백여 명의 학생이 시위에 참여하는데 그쳤고, 이나마 공권력의 강경대응으로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서울에서의 시위는 일주일 뒤인 3월 28일에 서강대, 4월 1일에는 연세대에서 벌이기로 연이어 계획됐으나, 서강대는 3백여 명의 학생이 구내식당에서 대정부 결의문을 낭독하는 정도로 그쳤고, 연세대의 경우에도 채플시간을 이용한 시국선언문의 낭독과 주동학생의 연행으로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4·3투쟁과 「민중·민족·민주선언」

신학기 투쟁을 완전한 실패와 좌절로 끝낼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의 갈림길이었다. 4월 1일 저녁, 1선 지도부로 활동했던 정문화, 김병곤, 황인성과 만나 긴급회의를 열었다. 상황은 거의 비관적이었다. 박정권은 우리의 거사 이전부터 신학기 전국적 투쟁정보를 입수하고는 예비검속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다. 2선으로 빠져 장기전에 대비하려던 서중석이 잠깐 들른 그의 고향집에서 연행됐고, 관련 인물들이 대량으로 검거됐다는 비보가 날아들고 있었다.

전국적 투쟁의 승부는 이미 끝난 것이라는 데에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다. 그러나 내친걸음이었다. 싸우는 길 외에 그 어떠한 선택도 우리에겐 없었다. 4월 3일, 예정대로 투쟁이 결행됐다. 계획대로 각 대학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서울은 청계 5가와 서울역이 집결지가 됐다.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고려대, 서울여대, 감신대, 명지대 등에서 오전 10시, 11시를 기해 일제히 「민중·민족·민주선언」과 「민중의 소리」,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뿌리며 시위가 시작됐다. 서울의대생 5백여 명이 흰 가운을 입고 경찰과 교문 앞에서 대치했으며, 서울문리대는 4·19탑 앞에서, 성균관대생 4백여 명도 교내에서 각각 선언문을 낭독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화여대생 3천여 명도 교내 채플시간을 이용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저녁에는 청계천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

민청학련과 관련하여 배포된 유인물은 「삼민선언」 등 3종의 유인물이다. 당시 유인물의 인쇄와 출판, 배포의 총책은 이근성이 맡았으나, 실질적인 작성과 배포는 현장지도부에게 일임됐다. 대표적인 유인물인 「민중·민족·민주선언」은 나병식이 쓴 초고를 현장 지도부가 대폭 수정하여 완성시킨 것이었다. 이는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지향점과 민중을

민주화, 통일운동의 주체로 분명히 밝힘으로써 학생운동사에 큰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에 뿌려진 유인물들은 현장에서 과감히 첨삭되면서 작성됐기 때문에 딱히 꼭 누가 작성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것이다. 다만, 4·4조로 된 방대한 담시 형식의 「민중의 소리」는 장기표가 쓴 것을 김병곤이 받아왔다고 알려져 있다.

1월 중순부터 우리 현장지도부는 삼양동 근처에 방을 하나 얻고 있었다. 그 집은 작은 툇마루 하나에 방 하나씩, 대략 20~30가구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부분 인근 공장에 다니는 신혼부부들이 살고 있었다. 총각 너 다섯 명 정도였던 우리는 근처 공장에 다니고 있다고 주위에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

등록금을 털어 방을 얻고 당시로서는 꽤 고급 인쇄기를 구입했다. 고급이라고는 하지만 기름종이에 필사해 그것을 둥그런 원통에 감아 손으로 돌리면 인쇄되는 구식기계였다. 그나마 한 장 한 장 롤러로 미는 것에 비하면 최고급이었다. 유인물의 필사는 김병곤이 주로 담당하였는데, 김병곤은 자타가 공인하는 명필이었다.

그러나 방이 좁을 뿐더러 주위의 시선도 있고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인쇄소를 옮겨야 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곳이 광화문 국제극장 뒤편의 우드스탁(그루터기)이라는 레코드 가게였다. 이 가게는 평소에 문리대 학생들의 출입이 잦았던 곳으로 훗날 내가 검거되기 전 마지막 은신처가 된 곳이다. 레코드 가게 뒷방에는 이근성을 책임자로 하여 10명의 여학생이 인쇄, 배포조로 배치됐다. 이름이 정확치는 않지만 서울대 동양사학과 72학번 윤혜영, 사회학과 정진선, 독문과 최정복 등이 거기서 활동했던 것 같다.

나는 이근성을 통해 2인1조의 배포조를 구성, 4월 3일에는 청계천, 서울역 부근과 그 인근 건물 및 외곽에 뿌리게 했다. 당시의 살포 방법은 버스 지붕의 환기창에 쌓아 놓고 내리면 버스가 출발하면서 자동으로 살

포되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교외선을 타고 제일 뒤칸에 있다가 적당한 지점에서 뿌리는 방법, 또 고층건물 옥상 모서리에 쌓아두고 바람에 날리도록 하는 방법 등이 이용됐다. 유인물 배포는 계획대로 진행됐다.

긴급조치 4호가 발포되던 1974년 4월 3일, 나는 여정남, 유인태 등과 함께 광화문쯤으로 기억되는 곳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발표하는 특별성명이 들려왔다.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은 민청학련이… 화염병과 각목으로 시민폭동을 유발했으며, 정부를 전복하고 노농정권을 수립하려는 국가변란을 기도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10시를 기해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다. 긴급조치 4호의 내용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민청학련과 관계되는 제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고무, 찬양하는 일체의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수업의 거부, 학교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상적 수업과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내외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 집단행위를 금하고,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한다."

민청학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은 물론 이를 돕거나 동조하는 자까지 최고 사형에 처하며, 교내외 일체의 시위·집회·농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폐교는 물론 병력까지 출동시키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4월 8일까지 민청학련 관계자가 자진출두하면 그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친절과 아량'까지 베풀고 있었다.

초기에 나와 유인태, 강구철 등의 현상금은 50만원이었는데, 그 50만원이 100만원으로, 4월 13일에는 유인태와 내 사진이 붙은 전국적 지명수배가 내려지면서 현상금 액수가 200만원까지 껑충 뛰었다. 현상금이 200만원이라는 4월 13일자 뉴스는 여정남의 하숙집에서 들었다. 유인태가 라디오를 통해 들은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을 때 우리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간첩 현상금이 30만원이던 시절이었으니 실로

상상도 못할 액수였다. 그리고 내가 붙잡히던 4월 24일의 내 얼굴에 붙은 현상금은 자그마치 300만원으로 뛰어올라 있었다.

우리는 각기 흩어져 피신하기로 했다. 서중석 등이 3월 말에 예비검속된 상태였고, 이어지는 체포망에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잡혀 들어간 상태인지라 곧바로 투쟁을 재조직해 내기는 불가능했다. 일단 잠적하기로 했다. 그러나 간첩보다도 더욱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우리에게는 막상 갈곳이 없었다. 곧이어 4월 15일을 전후해 유인태와 여정남이 체포됐다.

나는 이 때 몇 개월의 수배생활을 통하여 항상 예비은신처를 보아두고 다녔었다.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앞에서 밝힌 광화문 박두칠 · 박홍식 형제가 운영하는 '우드스탁'이라는 레코드 가게였다. 레코드 가게를 찾은 것은 4월 13일을 전후한 저녁 10시 무렵이었다.

당시 나는 안경을 사서 끼거나 옷을 바꾸어 입는 등 변장을 하고 다녔는데, 가게에는 두 세 명의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를 발견한 동생 박홍식은 얼른 나를 데리고 뒷골목으로 갔다. 며칠 숨어 있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형이 나가고 없으니 우선 창고 방으로 가자고 했다. 그의 안내로 들어간 방은 방이라고 할 수 없는 가게 뒤에 붙어 있는 창고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와 퀴퀴한 냄새 때문에 사람이 기거하기 힘든 곳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릴 계제가 아니었다. 그곳 창고 방에서 아침이면 두 형제가 하루 먹을 음식을 갖다주고 밖에서 문을 잠그면 그 안에서 하루를 지내는 생활을 며칠 동안 계속했다. 가장 갑갑하고 궁금한 것은 뉴스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곳에 가기 전에 라디오를 사러갔다가 큰일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나는 친구가 주웠다는 주민등록증을 살짝 챙겨서 가지고 다녔는데, 그 주민등록증은 나보다 나이가 20살 가량 많은 사람의 것이

었다. 라디오를 사러온 나를 수상히 여긴 가게 주인이 신분증을 제시해 달래서 그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 주민등록증을 본 주인이 잠시 기다리라며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신고하러 가는구나' 생각하고 얼른 자리를 피했던 경험이 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주민등록증의 주인은 나와의 관계를 묻는 수사관에게 따로 치도곤을 당하였다 한다.

아무튼 창고방에서 생징역살이를 보내던 나는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겠다'는 궁리 끝에 두 가지 일을 생각해냈다. 하나는 불란서 대사관을 통해 망명을 요청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에 변장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 무엇으로 변장할까 고민하다가 스님이나 신부보다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 없는 고교생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진 돈을 다 털어 박홍식에게 부탁했다. 교복, 교모, 책가방, 헌책을 구하고, 학교는 서울 변두리 고등학교 뱃지로 맞추어 달라고. 아무래도 서울시내를 다니기엔 변두리 학생 신분이 나을 것 같았다. 며칠 후 교복과 교모가 준비됐다. 교모는 너무 새것이라서 땅에 한 번 굴리고 채양 가운데를 꺾어서 '논나니'처럼 보이게 했다. 이렇게 고등학생 복장을 하고 시험삼아 버스와 택시를 타서는 내 현상수배 사진(당시 대중교통 수단에는 다 붙어 있었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은 왜 수배된 거죠?" 하고 물었다. 신통하게도 내 얼굴을 한 번 쳐다보곤, "학생은 알 것 없어" 하고 대답했다. 나를 몰라본 것이다. 자유롭게 피신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들었다.

외국망명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박두칠이 불어학원 강사로 있는 외국인을 통해 불란서 대사관에 알아봤는데, "망명은 환영하지만 한국 영토 내에서 사람을 빼돌릴 수가 없다"는 회신이었다. 고민 끝에 장기은신을 위해 인천 쪽으로 나가서 고시준비생 행세를 하기로 하고 방을 얻을 자금을 구하기로 했다. 당시 박두칠 형제의 레코드 가게

는 두 형제가 간신히 끼니나 때우는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세를 질 수가 없었다.

돈을 구하기로 작심하고 찾은 사람은 경기고 시절 절친했던 K였다. 귀가길에 만나려고 그 친구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첫날은 실패하고 둘째 날 저녁 어슴프레한 무렵 K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몰라보다가 잠시 후 알아보고는 얼굴이 샛노래져서 "돌아가라"며 뒷걸음질쳐 들어가 버렸다. 내가 잡히게 된 동기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샛노랗게 질린 K의 얼굴을 보고 다그쳐 물은 그의 부모가 "이철이 고교생 복장을 하고 다닌다"고 말했던 것이다.

부주의하게도, 나는 이틀 후 K의 집 근처의 사직공원에서 당시 고려대병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던 먼 친척동생을 만나 돈을 받기로 했었다. 아마도 내가 사직공원 근처에 나타났다는 K부모의 제보에 경찰이 그곳에 미리 진을 치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여동생을 만나지도 못하고 사직공원 정류장에서 불심검문에 걸리고 말았다.

당시 나를 잡은 사람은 그 지역 파출소의 유모 순경이었는데, 그는 파출소에 들어가자마자 내 이마 위의 흉터를 확인하곤 "너 이철이지?" 하며 정신없이 상부에 보고했다.

빨갱이로 몰기 위한 고문과 폭력

파출소에서 나와 종로경찰서 대공과에 들어선 순간 '잡았다'는 만세소리와 함께 흠씬 얻어맞았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간단한 신원확인 후 중앙정보부로 직행했다.

수사는 중앙정보국 6국장 주재로 진행됐다. 6국은 특별국으로 박정권의 특공대와 같은 조직이었다. 내가 들어갔을 땐 이미 우리 사건은 끝이 난 상태였다. 뒤에 안 이야기이지만 최초의 수사는 우리의 배후로

재야혁신계 인사가 집약됐다고 한다. 유근일, 조영래, 함석헌, 윤보선, 김찬국 등에 그 공격방향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잡혀 들어간 4월 24일 시점에서는 이미 우리의 배후로 재야혁신계는 물론 여정남을 통한 인혁당의 배후조종, 그리고 다찌가와 등 일본인 기자를 통한 조총련의 배후조종으로 이미 '밑그림'이 조정된 상태였다. 수사는 5박6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됐다.

수사실은 2층 방으로, 내가 앉은 책상 옆으로 계장, 과장의 책상이 늘어서 있는 구조였다. 다른 한편에는 심문관 책상이 있었다. 그리고 입구에는 헌병 두 명이 지키고 있었다. 수사는 과장과 계장, 보안대 출신이라 '이준위'라 불리던 사람, 그리고 정모라는 사람, 이렇게 대략 넷이 진행했다.

첫번째로 묻는 것은 사상문제였다. 사회주의자임을 자술하라며 증거로 학창시절 정치학 강의시간 중에 담당교수가 제목을 지정하여 내주었던 「테러리즘에 관한 평가」라는 리포트까지 동원했다. 더욱이 이 글에 대해 각계 인사들에게 성향분석을 의뢰하여 반공연맹 이사장이었던 경희대 신상초 교수로부터 '탁월한 공산주의자의 폭력혁명을 선동한 논문'이라는 평가까지 받아놓았다. 나는 단호히 거부하였다. 그러자 다짜고짜 두들겨 패며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낙찰(?)본 것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개념이었다.

"본인은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로서 그 동안 국민의 헐벗고 굶주림에 분노를 느껴…"로 이어지는 진술서가 작성됐다.

그 다음으로 집중된 수사내용은 여정남과 인혁당의 배후조종 부분이었다. 사실 수사 초기에는 나, 유인태 등이 여정남을 지도했다는 진술서를 요구했다. "선배를 어떻게 조종하느냐?"며 항의했다. "너희 서울대 애들이 다 해놓고 뭔 얘기냐?"며 추궁하던 그들이 나중에는 여정남의 배후조종을 받았다는 진술로 바꿨다. "나이도 한참 위고 하니 너

희들이 지도받은 것으로 하자"는 선에서 수사가 끝났다. 인혁당 관련부분은 그것이 전부였다.

다음은 일본인 두 기자와의 관계였다. 두 기자를 통해 자금을 받고 폭력혁명을 사주받았다고 진술하라는 그들의 요구는 집요했다. 다찌가와, 하야가와 요시하루 두 일본인 기자를 유인태와 함께 만난 것은 1973년 12월 24일, 박형규 목사가 있던 제일교회에 〈청산별곡〉이라는 마당극을 보러가서였다. 그들은 한국의 학생운동과 신학기 학원가의 투쟁계획을 취재하고자 했다. 우리는 그들의 요청에 응해 다음날, 어머니가 일본인인 경기중학교 후배 조직휘의 통역으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은 반유신투쟁을 위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궐기할 것이며, 유신체제가 얼마나 반민중적인 파쇼 통제체제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받을 때의 상황은 이미 짜여진 각본 그대로였다. 조직휘의 거짓 자백으로 우리가 폭력혁명을 사주받았고, 자금까지 지원받았다는 것으로 각색된 것이다. 5박6일간의 수사과정에서 유인태는 문호철 검사에게, 나는 송종의 검사에게 각각 이 사실의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들은 "두 일본인 기자의 구속으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돼 있다. 민족적이며 애국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외교적 타격을 받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회유하면서 유인태와 나를 한방에 앉혀 놓고 대질심문과 설득을 계속했다.

우리는 극도의 심리적, 육체적 피로 속에서 조직휘의 돌연한 거짓 자백으로 말미암아 이미 기정사실화된 조직휘의 진술을 각색하여 진술했다. 우리의 국내적 재판과는 무관하게 외교적으로 애국적 차원에서 사용하겠다던 공안검사들의 말에 나약해진 심리적 상태가 끝내 타협을 짓고 만 것이다.

그 다음의 문제가 폭력혁명과 4단계로 구분된 통일전선론이다. 그들은 우리가 1단계 반정부연합세력 형성, 2단계 정권 타도, 3단계 연합

정부 구성, 4단계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4·3봉기가 성공하면 2단계의 목표를 쟁취하는 것이며, 민족지도부 구성에 관한 논의는 전술한 3단계의 혁명목표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이 진술내용은 북한의 통혁당 등의 혁명전술에 따라 지금까지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공소장에 붙이는 상투 문구이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불순한 의도를 제외한다면 박정희 유신정권의 타도와 민족·민주정권의 수립이라는 과제는 시대적 과제이고 요청이었다. 또한 유신폭압세력에 저항하고자 각계각층의 힘을 결집시켜내려 한 것은 정당하며 올바른 역사적 대응이었다.

또 다른 것은 화염병 문제였다. 다만 화염병 문제는 전술했듯이 의대 후배였던 황승주와 같이 섬광 마그네슘을 이용한 폭음탄을 만들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도화선을 구하지 못해 포기했었다. 이후 성냥의 황을 잘게 부수어 실에 묻혀 도화선을 대체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던 일상의 경찰폭력과 정권탈취를 위해 사용한 총, 칼, 탱크에 비교할 때 우리의 쓰려던 폭력은 그야말로 애교스럽기까지 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중앙청을 점거하려 했다는 공소 내용은 지금 생각해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사형 7명, 무기징역 7명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관련자 1,024명의 학생·지식인을 연행, 조사하여 이중 745명을 훈계방면시켰으며, 253명을 비상군법회의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당시 학생운동의 중추적 존재들이었으며, 민청학련의 배후 및 관련자로 지목된 재야는 물론, 인혁당 재건위 관련혐의로 22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의 사회적 여파는 여간한 것이 아니

었다. 더욱이 학생들의 많은 숫자가 기독교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한국교회와 박정권은 일대 공방전을 방불케 했다.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송치된 253명 중 다시 73명을 석방하고 180명을 기소했다. 5월 27일 제1차로 일본인 2명을 포함한 민청학련 주모자급 55명이 기소됐다. 죄목은 대통령긴급조치 4호 위반 외에도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 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것들이었다.

6월 15일 오전, 국방부와 인접한 비상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서 학생운동 관련자 3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넓지도 않은 법정은 초만원이었다. 32명이나 되는 피고인만으로도 공판장은 꽉 메워졌다. 그러다보니 방청석은 몇 줄 남지도 않아 방청권은 피고인당 한 명의 가족만이 허용되었다. 이 제한된 방청권마저 정문에서 신분증 대조 등으로 시간을 끌어 끝내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도 많았다. 일반인의 방청이 봉쇄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가족면회를 한 적이 없었고, 재판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앉아 있었지만, 그야말로 방청만 했지 메모를 한다거나 취재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그들은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문을 데스크에 전달하는 일밖에 없는 듯했다), 군재 관계자 및 기관원들이 더 많은 자리를 점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재판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재판은 투쟁의 정당성과 유신정권의 사활을 건 우리와 검찰측간의 설전으로 6월의 초여름 날씨를 한여름 염천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검찰의 공소장 사실 여부를 묻는데 '예, 아니오'라는 수동적인 답변에 머물지 않고, 주장을 공세적으로 펼쳐나갔다. 때문에 재판은 발언 저지, 경고, 휴정, 퇴장명령, 항의소동으로 뒤범벅이 됐다. 속전속결이라는 군

사정권의 구호만큼이나 재판은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한 달만에 심리를 끝낸 재판은 7월 9일 결심에 이르렀다.

검사는 나를 포함한 8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 검사의 그 구형은 한 편의 코미디이다. 전혀 현실의 일로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그날 재판을 마치고 서대문구치소로 돌아오는 호송차에서 죽음이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검사의 구형이 있고 나서 바로 최후진술에 들어갔다. 나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아깝지 않다. 하지만 유신체제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반민족적인 것이다. 반유신을 이유로 나에게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우지 말라. 그렇다면 나는 떳떳이 죽겠다"고 진술했다. 나와 함께 사형을 구형받은 김병곤은 '영광'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때 황인철 변호사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홍성우 변호사는 강경한 논조로 변론했다. 강신옥 변호사는 유신정권을 짜르시대, 나치시대와 비교하며 우리의 투쟁을 정당한 국민저항운동으로 변론하면서 "저 피고인석에 서 있는 저들과 함께 서서 재판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하였다.

변호인단의 변론이 진행되던 중 양쪽 어깨에 별이 유난히 번쩍이던 재판관이 쪽지를 하나 받아보더니, 이내 휴정하겠노라 선포하고 재판을 중단시켰다. 잠시 후 속개된 재판정에는 강변호사와 홍변호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박정권은 강변호사를 긴급조치 4호 위반죄와 법정모욕죄로 구속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마침내 7월 13일 1심 선고재판이 열렸다. 결과는 사형 7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이라는 가히 천문학적인 형량이었다. 법정에서 선고된 형량만을 합쳐도(무기, 사형 제외) 340년이라는

징역이 떨어진 셈이다. 관련죄목은 긴급조치 1호 및 4호,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이었다.

우리의 이러한 투쟁과 재판이 알려지자 국내외의 여론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9월 개학과 동시에 전국적인 반정부, 반유신 데모가 벌어졌고, 동아일보 광고해약사태를 계기로 전국민적인 반정부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한편 구속자 가족들은 "우리들은 있지도 않은 소위 인혁당과 민청학련의 가족으로서 외부적 강압에 의해 이제서야 서로의 인연이 맺어졌으나, 우리들의 남편, 아들, 딸의 진정한 뜻을 명확히 알게 된 지금, 우리 가족들은 스스로 단결하여 동지적 입장에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세워지고 정의와 평화가 가득 찬 사회를 이룩할 때까지 한 걸음도 투쟁의 대열을 늦추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라고 결의했다.

11월 27일 함석헌, 김재준 등 각계 대표 71명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고 국민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민주헌법 제정, 구속·연금인사 석방, 그리고 정치적 권리회복, 언론자유 보장 등 총 6개항을 요구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일본, 서독 등의 교포들이 박정권을 규탄했고, 7월과 8월에 미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문제공청회가 열리고, 박정권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국내외적으로 사면초가의 신세가 된 박정권은 1974년 4월 3일 민청학련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 12일만인 1975년 2월 15일 마침내 관련자 대부분인 148명을 석방시켰다. 그러나 소위 인혁당 관련자 21명과 민청학련 관계자 4명만은 제외됐다.

나는 2월 17일 저녁 8시 경에 석방됐다가 1975년 4월 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서대문형무소에 재수감되었다. 인혁계 사람들은 그날 사형이 확정됐다. 나는 그 사람들을 교도소 가서 처음 봤고, 그

전에는 얼굴도 이름도 몰랐었다. 그러나 그들의 죄목은 어처구니없게도 '민청학련 배후조종'이었다. 4월 9일 새벽, 인혁계 인사 8명에 대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됐다. 인혁계 사람들의 사형이 집행된 그날 나는 형집행정지로 다시 석방됐다.

다시 새봄을 기다리며

1974년 4월 3일은 나와 나의 친구, 선후배 동지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이 터진 이 날은 어쩌면 유신시기의 어두운 역사에 가장 중요한 날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영구독재의 천년아성을 쌓으려는 유신체제에 청년학생들이 정면으로 맞선 날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지막지한 그들 유신의 강권에 참혹하게 강타당하고 암울하게 유린당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석방 직후 나는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기록했다.(「씨올의 소리」 1975. 3)

얼마나 추웠던 겨울이었습니까? 얼마나 길었던 겨울이었습니까? 살을 에이는 추위를 막아낼 옷이 없는 이들은 추위에 떨며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온밤을 지새웠습니다. 뼈를 저미는 배고픔에 지친 이들은 거리를 방황하며 그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공포에 떨며 오랜 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춥고 길었던 겨울도 우리가 잃어버린 계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나은 경작을 위하여 전답의 관리를 가늠해 보던 예비기였으며, 더욱 풍요한 수확을 위하여 씨올을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춥고 긴 겨울이 지나 이제 봄이 다가옴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결

코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겨울이 지나서야 봄이 오고, 어두운 어제가 있음으로 더 밝은 내일이 있다는 섭리가 있음을 압니다 내가 따뜻한 구들목을 차지하기 위해 남을 문밖의 추위로 몰아내었든지, 배고픔에 지친 이들을 방관했었든지, 혹은 내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였음을 부끄러워하는 통회의 눈물이 얼어붙었던 이 대지를 녹이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리운 형제들을 다시 만나 희망과 행복에 찬 삶을 즐길 새봄이 오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입김이 세찬 바람을 따뜻하게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 종교계의 기도회, 각 사회단체의 활동, 정가의 동요, 그것은 국민이 옥중의 우리들에게 보내는 정성과 새질서를 희구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정보부원의 눈물, 사형수의 온정, 재판장의 목소리, 교도관의 말, 그리고 국민의, 전국민의 이와 같은 마음들이 창살을 녹여 우리를 옥에서 끌어내어, 나아가 역사를 전환케 할 힘임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온 국민이 보내주는 성원 앞에 다시 한번 전률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 속에서 편히 휴식할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오신 이들이 보내주는 이 성원에 나는 몸둘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봄은 먼 곳에 있고, 또다시 꽃샘바람이 불더라도 계절을 변전케 하는 기도의 입김은 결코 그치지 않으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아직도 엄동의 추위에 떨고 있을 옥중의 친구들에게 이 글을 드리면서 다함께 새봄을 맞이하려 애쓰는 국민들에게 저의 조그만 마음을 바칩니다.

민청학련 사건의 역사적 의의

민청학련 사건은 스쳐 지나가는 역사 속의 한 단면일 수 있다. 그러

나 30여년 가까이 흐른 오늘에도 여전히 민청학련 사건은 우리 세대의 삶과 지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역사다.

역사 속의 많은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민청학련 사건은 결코 어느 한 개인에 의해 우연히 완성되거나 대표되기에는 너무도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당시의 투쟁을 실체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운동사적으로 규명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험적 사실만으로는 너무도 힘겹고 벅찬 것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 글은 그러한 노력의 한 출발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자리매김 절차의 하나이다. 정확한 사실규명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을 위해서는 당시에 투쟁했던 여러 동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역사적 진실과 교훈을 정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재야 원로분들, 윤보선 전대통령, 장준하 선생, 지학순 주교, 백기완 선생,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김찬국 교수, 백낙청 교수 등을 비롯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배, 동지, 후배, 그리고 재야인사 여러분, 레코드 가게를 우리의 은신처로 제공하여 옥고를 치르고 출옥 후 출가하신 목우 스님, 우리 사건을 변론하다 옥고를 치른 강신옥 변호사,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슴을 졸이고 수사기관의 밤낮 없는 가택침입에 시달리셨을 부모님, 또한 사건 관련자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석방에 힘을 써주었던 국내외의 민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사들. 이들 모두가 이른바 민청학련의 진정한 주역이라고 생각한다.

세월이 흘러 민청학련 관련 인사들 가운데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와 통일을 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새삼 명복을 빈다. 특히, 1975년 4월 8일 사형판결 다음날 새벽, 포악한 권력의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여정남 선배와 인혁계 인사 7명에 대해 삼가 명복을 빈다. 당시의 지향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

완의 민청학련이 수행한 역사적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학생운동의 지향과 운동의 성격을 민중지향적으로 바꾸어놓는 데 일조하였다는 점이다. 당시의 「민중 · 민족 · 민주선언」은 이 땅의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 및 통일운동이 지향하여야 할 기본성격에 대해 비록 그것이 사회과학적, 철학적 정리수준은 아니었다 해도 최초의 이론화였다고 생각한다.

둘째, 민청학련은 군부독재 등장 이후 최초의 전국적인 학생운동을 창출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그 수준은 단일한 조직적 전망과 대열을 갖추지 못하고 통일적인 반유신 투쟁을 위한 연락체계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이는 학생운동의 당시 수준에서 평가해 본다면 대단히 진일보한 형태였다.

셋째, 학생운동이 가지고 있는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현재적 측면에서 볼 때 민청학련 그룹은 운동의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세대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학생운동과 민청학련세대의 학생운동을 곧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어렵지만, 민청학련의 대다수 주역들이 오늘의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당시 자신들이 지향했던 민주와 통일, 그리고 분배의 정의로 표현되는 민중성의 신념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는 민청학련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진보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민청학련 이전의 세대가 오늘날 사회진출 이후 보여주고 있는 기만성과 천차만별인 모습에서도 그 대비점을 찾을 수 있다. 아직도 여전히 민청학련세대라 불리는 대부분의 선배, 동기, 후배들은 당시의 신념과 소신을 간직한 채 이 땅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는다.